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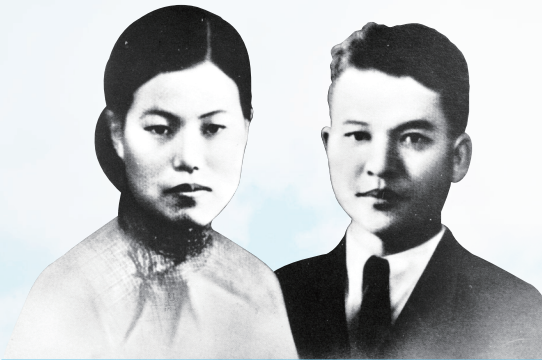
# 항일여성

6호 | 2019. 6.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부부 독립운동가, 박차정 김원봉의 사랑과 투쟁

-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박차정(1910~1995) 지사는 부산(釜山) 사람으로 김원봉(金元鳳)의 부인이다.

일제의 본격적인 침탈과  
강압이 강화될 때  
경남 동래 독립운동가  
집안의 막내로 태어난 박차정  
아버지 숙부 오빠들  
모두 다 항일 혁명가  
언니도 여학교 졸업 후  
교직에 봉사하다 병사  
어머니는 한글학자 김두봉의 사촌  
그에게는 항일혁명가의  
기운이 차고 넘쳤다

14세 일신여학교 재학 중  
조선소녀동맹 동래지부  
항일동맹휴학과 3.1학생운동  
졸업 후 동래청년회 부녀부장  
1928년 5월 근우회 동래지회  
1929년 근우회 중앙집행위원,  
상무위원  
선전 조직과 출판 활동

1930년 1월 서울여학생 시위 주도  
서대문형무소 수감  
병보석 후 중국 망명  
북경 화북대학에서 공부  
오빠 소개로 조선의열단 가입  
단장 김원봉에 대한 사랑  
입원 중 극진한 간병으로  
살려내고 회복시켜  
12세 연상의 그와 꿈같은 결혼  
장개석과 주은래의 도움으로

개교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여자부 교관 되어  
교양교육과 훈련 담당  
“조선에서 자란 소년들이여  
가슴의 피 용솟음치는 동포여  
울어도 소용없는 눈물 거두고  
결의를 굳게 하여 모두 일어서라  
한을 지우고 성서로운 싸움으로  
필승의 의기가 여기에서 뿜다”  
조선혁명간부학교 교가도 작사  
하였다

1935년 7월 남경, 좌우합작으로  
결성된 민족혁명당 부녀부 주임  
지청천장군 부인 이성실과  
남경조선부녀회도 조직  
전민족 통일전선 위해  
조선여성의 총단결 호소  
“봉건적 가정의 노예  
일제 약탈 시장의  
임금노동의 노예  
여기서 해방되려면  
일제 타도에 앞장서고  
조선의 진정한 자유 평등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성의 해방은 없다”

만국부녀대회 한국 대표로  
일제의 침략 규탄  
한구(漢沽) 라디오 방송  
일제는 중국과  
조선의 적일 뿐아니라  
일본 민중의 적이다  
함께 힘을 모아  
동아시아의 평화  
인류의 정의를  
세우자고 역설

임철애라는 가명으로  
1937년 일제의 중국 침략  
여성의 차별적 현실에  
일치단결, 조국의 자유 위해  
일제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부르짖었다

1938년 10월  
한중연합전선의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장  
22명의 여성대원 훈련  
전선의 적후공작, 동북진출  
아낌없이 모든 걸 바쳐  
1939년 곤륜산 전지에서  
대원들 위무 활동과  
적군을 향한 선전 공작 중

무참하게도 총상을 입고  
후유증을 무릅쓰고 활동  
  
마침내 1944년 5월  
중경에서 한방울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스러져 갔다  
해방 후 남편 김원봉  
유골을 가슴에 품어 안고  
자신의 선영 밀양에  
안장하였다




조선 독립을 위해  
헌신하다 34세에  
애 통하게 순국한 박차정  
후배들이 비석과 동상을 세우고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서훈  
박차정여성운동가상 제정으로  
기림받고 있어도

쓸쓸하고 외로운 무덤  
돌보는 이 하나 없이  
버려지고 밝혀짐에  
남편 김원봉의 애끓는  
원한은 더욱 깊이  
사무칠 듯하여라

## 목차

- 04 인사말 김희선 이사장
- 08 이만열 교수(前 국사편찬위원장) 인터뷰
- 11 강병구, 강촌마을 소녀 이야기 I - 김지희(강병구 선생님의 딸)
- 14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및 국외네트워크 교류사업 답사기  
- 남상만(기획사업분과위원장)
- 17 끝나지 않은 만세, 배화여학교 학생 항일 독립만세운동 -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20 일제강점기 최대 통합 여성단체 근우회 -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 22 광주지회 심포지엄 기조발제 여성독립운동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 광주·전남 항일여성투쟁과 독립운동 개념의 확대 - 이경순(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28 사업 소식
- 32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안내
- 34 후원 회원 명단

발행일 2019년 6월 30일 통권 6호 발행인 김희선 편집위원 김희선 김수미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이은주 최교익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후원  수협  KEB 하나은행  DROPTOP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인 사 말



이사장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소식지가 이제 6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만 발행하던 것을 올해 5호부터는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본회가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 발행뿐만 아니라 또한 본회 조직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에 지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지회 발족기념식과 함께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분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성황리에 기념식을 했습니다.

본회 중앙에서도 다음과 같이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남상만(기획사업분과 위원장), 김경익(공연예술분과 위원장),

이구영(시각예술분과 위원장), 이민재(영상예술분과 위원장),

이은주(홍보분과 위원장), 홍정석(청년미래분과 위원장),

이길용(대외사업분과 위원장), 표대연(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위와 같이 9개 분과를 신설하고 9명의 임원들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이라는 큰 책무를 맡아주셨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많은 청년의 적극적 참여도 이루어져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회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사님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수고해주신 기획위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이 열과 성을 다해 본회에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8일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를 세운 사업은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아낌없는 참여가 있었기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혁명전야>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항일여성 독립운동가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본회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본회 연대활동으로는 각 지방에서 초상화 전시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서울역 전시회를 위시하여 지난 2월 광주 전시, 3월에 우표박물관

전시, 4월에는 울산박물관에서 전시가 개최되었고 오는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에 맞추어 대전예술가의집에서 초상화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분들의 초상화를 전시하는 일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겨우 한, 두 분의 이름과 얼굴만 기억하셨던 많은 분이 본회의 초상화 전시를 통해 잊힌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계셨다는 것을 알고 놀라곤 하셨습니다. 초상화에 대한 전국적 관심이 쏟아져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전시회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본회 임원들께서 많은 강연 요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에 이어 KEB하나은행 사회공헌부의 후원과 같이 카페 드롭탑과도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함께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도 본회는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8.15에는 <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100년 전의 함성 오늘 그들 여기에>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3.1혁명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국제심포지엄, <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1회 항일 역사 독백대회>,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주제연극 공연 등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초상화 전시회, 시민참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런 모든 행사는 우리 조직에서 전체 운영과 실무를 새롭게 맡으신 송형중 대표님께서 주관하여 기획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극협회 회장, 한국영상대 연기과 교수 등을 맡으며 20년 이상을 문화예술계의 대표 주자로 활동하시며 문화예술을 통해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사명 아래 고맙게도 대표 라는 책무를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6호에는 감사하게도 이만열 교수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시어 본회에 훌륭한 조언과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본회가 세워지기 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해주신 분 중 한 분이신 이만열 교수님을 인터뷰하며 본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사명감을 띠고 일하며 좋을지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의 도움과 격려, 참여 속에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더 다양한 세대, 특히 미래세대를 살아갈 청년들의 많은 참여로 크게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들 젊은 세대가 주인공이 되어 활동하게 된다면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투쟁 정신을 기리는 일들이 미래세대에 길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길에 기쁘게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 두 언

“2019년,  
그리고 +1”을  
기획하자!



대표이사 송형종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1혁명은 친일파와 친일지주 그리고 일본에 예측된 자본가, 그 극소수를 제외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이자 계몽운동이었습니다. 또 의병운동이었고, 민중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었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립운동의 경험과 의지가 하나로 수렴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혁명이었습니다. 3·1혁명을 기점으로 일본제국주의는 무단통치를 포기했고, 민족적으로는 수많은 젊은이가 참된 독립의 꿈을 꾸며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어 독립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3·1혁명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중국의 5.4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인도에서 간디를 중심으로 일어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인 제1차 사타그라하운동에도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의 반영자주운동과 필리핀과 터키의 민족운동에 까지, 아시아는 물론 중동지역의 민족운동을 촉진해 전 세계적인 민족자주 운동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일제에 맞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투쟁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민족해방운동. 그 결집의 힘은 세계 수많은 식민국가 및 전쟁 피해국의 국민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3·1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와 민주주의 등 이념의 대립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념 대립보다는 민족독립이 더욱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독립투쟁의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통일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일부는 남한으로, 일부는 북한으로 포진하여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 노력은 수많은 외세와 그 외세에 타협한 몇몇 정치적 인물들의 변별된 생각으로 지금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많은 독립운동가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월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릴 이유가 없다는 것은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진영 논리보다 민족해방이 우선이었고, 진영을 갖추는 과정에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상황을 개탄해, 좌우합작 통일 한국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나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서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분들을 성심성의껏 찾아내어 기려야 할 것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들의 논리대로 그래서 좌익이다, 그래서 추서하면 안 된다는 식의 이념 논쟁으로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해선 안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거울삼아 오늘을 돌아보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역사 속에 과거는 그때 그 당시의 배경과 사회적 합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현재에 통하는 인식으로 그 시절을 보아서는 왜곡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 왜곡과 오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또 다른 권력에 기생하는 방편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무장독립투쟁론이 외교독립론보다 하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주체적이고 민족적인 참된 독립운동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물론 항일독립운동가들은 오로지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독립은 그분들이 꿈꾸는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그분들은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3·1혁명,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 또한 그 미래를 위한 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친일청산, 적폐청산, 독립운동가 추서, 이 모든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모두 미래를 위한, 미래를 꿈꾸는 행위입니다. 그리움은 공감입니다. 공감은 소통이며 소통은 함께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역사 공간의 배경에 대해 명명백백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인식 안에서 2019년,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때 비로소 참된 미래 가치가 창조될 것입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들이 뼈저리게 새겨온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며, 그 기억을 알려 공감대를 넓힐 것입니다. 그렇게 2019년에 끝없이 +1을 더해 갈 것입니다. 참된 미래를 꿈꾸고 행동한다는 점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독립운동가분들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 진실한 독립유공자 서훈, 냉철한 친일청산에 동참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눈부신 6월의 한낮



## 이만열 교수 인터뷰

前 국사편찬위원장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상징조형물 건립위원회 공동회장



**Q** 2014년, 어떻게 여성독립운동가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요?

**A** (2014년 당시)까지도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남성들 중심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하여는 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독립운동은 반쪽짜리 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여성독립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원적인 이야기로 가자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거의 가정을 버립니다. 이회영, 조소앙 등 몇몇 분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가족을 떠나 독립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럼 가장이 떠나고 난 뒤에는 부인이 가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정과 가문을 지켜야 하고 자식들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나는 그것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드러난 독립운동도 제대로 연구를 못 했는데 그 밑의 가족사나 여성들에 관한 것들을 연구한다는 것이 당시 연구인력으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인권문제나 독립운동사 연구에서도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조명과 연구에 대해서, 명칭은 여성독립운동이라고 하고 여기에 여성들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에 가족과 가문을 지킨 분들이 떠나버린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었다는 것. 여성들이 가정

을 지켰던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여성 독립운동사에 관한 연구도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또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독립적 기관이 있지 않으면 연구가 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소나 기념사업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해드린 거지요.

**Q**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항상 항일여성독립운동을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3.1혁명, 8.15 광복기념일에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플래시몹,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시민참여프로그램, 100인 합창단, 랩 경연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사업회가 어떤 다양한 방향과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여고나 여대 같은 곳에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필요하다',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고나 여대의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 자연 여성독립운동가들에 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군이나 독립군에 가서 독립운동한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앉아서 자식을 키우고 가문을 지킨 자체가 독립운동이다, 그러면 이 여대생이나 여고생들에게 그 할머니들의 얘기, 그것을 모아보려고 권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보는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회를 처음 권할 적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것, 광복군이나 독



립운동가단체에서 활동한 여성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그동안 사실 무성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주에서 많은 이들이 무장투쟁을 했을 때 뒷바라지를 했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밥하고 빨래하고 하긴 했지만 그걸 도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찾아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총 들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자식과 가문을 지키는 일도 독립운동이고 또 전투지역에서 남성들이 싸움하러 나갔을 때 도왔던 사람들, 그분들 이야기를 모두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독립운동의 범주를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독립운동을 연구할 때 여성해방운동과 같이 봐야 합니다. 독립운동만 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근우회 같은 여성단체나 독립운동가로서는 보지 않고 여성 미술가, 신여성으로서만 보는 나혜석이라던지, 그런 분들은 당시 남성 위주의 봉건사회에 대해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성 위주 봉건사회를 더 강화한 것이 일제입니다. 그러므로 봉건사회에 대한 반대, 이 투쟁 자체가 당시로써는 일제에 대한 투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 출신의 정종명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총 들고 나가서 싸우지만 앉았을 뿐이지 정종명의 운동도 여성운동과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운동과 여성의 반봉건 운동을 같은 범주에서 보고 그다음에 가정과 가문을 지킨 여성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 혹시 우리 단체 사무실의 건물 외벽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밖에서 건물을 보시면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와 그 어록을 크게 담은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해왔습니다. (남자현, 윤희순, 김마리아, 오광심 선생님)들의 사진과 어록을 담아 대중들에게 알려왔는데 선생님께서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어록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A** 어록이라 하면,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이 옥에 들어가

서 고문을 당했을 때 하셨던 한마디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어록으로 건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을 찾으려면 독립운동사 자료를 봐야 해요. 특히 자료 가운데서 신문(조서) 자료. 재판소나 검사들 앞에서 신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안에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 어록으로 담기를 추천합니다.

**Q** 우리가 쉽게 3.1절 또는 3.1운동이라 부르는데 선생님께서는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3.1혁명은 민주민주화운동 차원에서 보는 시각과 반일 반제운동의 차원에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전자는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후자는 독립운동 차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즉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차원에서 3.1혁명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민주화운동 차원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시각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있는 것이 3.1혁명이거든요.

그럼 왜 3.1운동이냐 3.1혁명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느냐? 사실 1920년대에도 3.1혁명에 대한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1930년대 중반에 가서는 이 3.1운동을 3.1혁명으로 명명하는 것이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들이 정당을 만든다든지 또는 광복군이나 조선의열단을 만든다든지 하면 기관지를 내잖아요? 그 기관지에 3.1혁명이란 말이 1930년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940년대 가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들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1대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3.1혁명이라 할 적에 그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높이느냐면 프랑스혁명 못지않은 사건이 3.1혁명이다, 또 1776년에 미국 독립운동, 그에 못지않은 것. 실제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혁명이 파리에서 몇십만 명이 모였다면, 우리는 3.1

혁명 때 전체적으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시간적으로도 아주 길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프랑스 대 혁명보다 더 유의미한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44년에 우리 임시정부 헌법을 5번째로 고칩니다. 1919년 4월 11일에 임시헌장이 나오고 그해 9월 11일에 1차 개헌을 합니다. 임시정부 하에서 5차 헌법까지 나와요. 거기에 전문(前文)을 보면 '3.1대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들은 당시에 이미 3.1혁명을 운동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바꾼다는 의미의 '혁명'으로 본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래의 봉건체제를 바꾸는 근대적인 체제로 만든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침략주의에 대해서 자생적인 민족독립의 체제로 바꾸는 그런 체제의 변혁이라고는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 김구 선생도 그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헌법을 만들 때 그런 여론이 뒷받침된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는 헌법에 전문(前文)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은 헌법에 총칙이라고 해서 1조, 2조가 나오고 제1장 국민, 제2장 정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전문(前文)을 넣었어요. 전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인 국민은 기미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라고 나오니까. 사실 초안은 '기미3.1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혁명 대신에 운동으로 하자고 하여 바꿨습니다. 그니까 모인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상당히 퇴보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혁명이라고 해야 하느냐? 무엇보다도 혁명은 체제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제까지 내려오던, 내적으로는 양반, 귀족, 왕이 다스리던 체제를 국민이 다스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로 바꾸는 계기가 바로 이 3.1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한 '제국'에서 '민국'으로 건립했던 것이죠. 지금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919년 3월 11일에 이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습니다. 3.1혁명 전에 1800년대 농민운동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농민운동이 1862년에 철종 임술년에 임술민란이라고 일어나는데, 민란이라는 것이 사실 농민운동이거든요? 그 한 해에만 37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게 더 응집되고 천도교라는 이념하고 해서 나온 것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다음에 일제하에서 일제의 강고한 전제체제, 침략체제에 저항하고 내적으로 더 성숙하면서 나온 것이 3.1혁명이 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봉건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 외적으로는 침략체제에 대한 반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해방 후에는 4.19혁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1987년에 소위 6월 민주항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6년 말부터 촛불혁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중심에 3.1혁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Q** 우리 단체에서 이번에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를 통해 교육, 자료수집, 공부모임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해가면 좋을까요?

**A**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가정을 지킨 여성들이 가문을 지킨 이야기, 그분들이 어떻게 가정과 가문, 자식들을 지켜나갔는지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잘 없을 거예요. 구 전으로 내려오거나 할 텐데 구술이라도 모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도 가정을 나가서 안심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지, 이게 염려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얼마든지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지평을 넓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빠진 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되면 지금까지 전혀 연구대상이나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식민지시대의 여성들의 삶,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그런 집안의 여성들의 이야기나 글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 강병구, 강촌마을 소녀 이야기 I

김지희(강병구 선생님의 딸)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가끔 들려주시던 일제강점기의 이야기, 또 어렸을 때 어른들 심부름하셨던 이야기들을 그저 흘려버렸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의식적으로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여과 없이 나오게 되니 옛 애기와 연결고리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다. 왜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주재소도 아닌 부여경찰서에 자주 불려가야 했는지 도대체 무슨 심부름을 하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때가 늦었지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얻어내기 위해 어머니를 무

던히나 보채면서 힘들게 하고 있다. 98세 된 어머니의 하루는 24시간 잠에 취해 늘 누워계시다가 잠깐 정신이 드는 불과 1, 2분의 대화를 통해 기억 저 멀리 당시 상황을 회생시켜보려고 한다.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에 100여 호도 안 되는 강촌마을 '장하리'라는 작은 동네에서 진주 강씨 6명의 독립유공자(강석기, 강철구, 강성구(강일), 강일구, 강병국, 강성모)가 나올 정도로 그토록 치열하게 일제와 대항하며 살았다는 점이다. 백두산 천지에 가서 단군을 제향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려 독립운동의 근간으로 삼으려 했던 집안 아저씨 이야기며 그분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든가 등의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니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이다.

어머니는 진주 강씨이며 이름은 '병구'로 1922년 음력 10월 19일 생이다. 충남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장정마을 276번지에서 부친이신 강석구와 모친 문덕원의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나셨다.

외조부가 1867년생이고 외할머니가 1879년생이니 외할아버지가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뒤늦게 얻은 자식이 어머니이다. 강현순이라는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호적에는 강병구로 되어있다. 어머니 언니들 호적에는 '순' 자 돌림인데 어머니만은 진주 강씨 항렬인 '구' 자 돌림으로 지은 것이다. 아마도 외할아버지가 막내딸만큼은 아들과 차별을 두지 않고 무척 애지중지하신 것 같다.

첫째 언니와는 23살 차이가 난다. 외조부는 성격이 불같고 매우 근면하여 큰 부자도 없던 빈농 마을에 동네에서 알부자로 소문날 만큼 4명의 머슴과 심부름하는 사동까지 두었다. 농사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어머니가 5살 되던 무렵 살던 집에 방앗간을 만들고 지금의 외갓집인 바로 이웃 258번지로 이사 왔다고 한다.

그 아저씨라고 하는 분은 강석기라는 실존 인물이고 그 자제들이 다 애국자였고 또, 진주 강씨 친척들이며 상당수가 그런 애국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어른들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취할 때 일본 경찰에게 들키지 않도록 어머니는 어린 나이

에 위험한 일을 하며 노심초사 그분들을 위하여 늘 걱정했다. 어른들의 행동과 말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8살부터 16살까지 오랫동안 심부름을 했다. 일본놈에게 공출을 안 한다고 아버지 등에 작대기를 쫓고 얼음판 위로 끌고 다녔다는 말씀이며, 당시 10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일본놈이 밟고 분해서 밤새 소리 없이 울어서 새벽에 눈이 퐁퐁 부었다는 이야기며, 아버지의 만류에도 심부름해야 하는 이유로 어른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 구실도 못 하고 우리 진짜 말도 못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어리광부릴 나이에 너무나 빨리 험난한 세상을 경험해버린 것이다.

### 열 대 여섯쯤 되는 소년을 따라서 부여 시내에 심부름하러 갔다 돌아온 일이 있었다

외가 행랑채엔 대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공간이 있고 다른 쪽엔 부엌 딸린 작은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어머니보다 11살 위 친척 오빠인 강일(강성구) 모자가 살았다고 한다. 그 오빠와는 5대조인 대창(大昌)할아버지의 한 자손으로 어머니를 무척 아껴주었고 어머니도 잘 따랐다고 한다. 조선말에 의금부도사를 지낸 성구 오빠 아버지(강석하)가 돌아가시자 모자가 우리 외가에서 살게 되었다. 어느 겨울날 어린 어머니는 옷고름 속에 편지가 들어 있는 속저고리와 그 위에 숨을 누빈

걸저고리를 입고 열 대 여섯쯤 되는 소년을 따라서 부여 시내에 심부름하러 갔다 돌아온 일이 있었다고 한다. 강나루 건너 갈대숲을 지날 때 차갑게 울어대는 바람 소리나 숨저고리를 겹으로 입었던 거로 보아 추운 겨울이고 또한 8살이나 9살 되던 시기라고 기억하시는 거로 보아 구정 무렵으로 추정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순사가 들이닥치고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진 후 어머니와 외조부에게 다음 날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몇 가지 물건들을 압수해서 돌아갔다고 한다. 다음날 새벽에 외조부를 따라 나루 건너 십여 리도 넘는 부여경찰서에 들어가자 아침부터 여기저기 매 맞는 비명이 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일경이 시키는 대로 “와다구시 디\*\* 다이니뽕 \*\* 요코시마스”(발음이 정확지 않아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았음)를 목이 쉴 때까지 암송을 시켰다고 한다. 울면서 지치면 수없이 복창을 강요받으면서 등짝도 맞았다고 하셨다. 얼마나 지났는지 환갑도 훨씬 넘어 칠십을 바라보는 외조부는 오랫동안 조사받고 지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다음 날도 외조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여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깜깜한 밤중이 되어서나 돌아오셨다고 한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걱정되어 물으면 “자식을 어떻게 교육했냐”라고 묻더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잠이 드셨다고 한다.

손녀 같은 어린 딸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아버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행랑채에 사는 성구 오빠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껏 어머니가 울면서 복창했던 그 일본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어머니도 무의식으로 기억할 뿐 나도 일본말을 모르니 알 수가 없다.

강성구는 워낙 어릴 적부터 똑똑하여 외조부는 내심 어머니나 외삼촌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양식을 풍족히 주면서 보살폈다. 철없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라는 생각이 든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영향을 준 또 한 분은 서른여덟 살이나 위인 친척 강석기 장자인 강진구 오빠다. 한성사범학교를 다니다가 만주에서 부친 강석기가 세운 천영 학교에서 교원을 지내신 분으로 부친이 간직해오던 단군진영을 모시고 고향 집인 장하리로 내려와 외가와 이웃하고 살았다고 한다. 그분과 향렬이 같고 그분과 어머니는 5대조인 대창 씨 한 자손으로 제사를 같이 지내는 가까운 집안이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빠라고 불렀으며 평생의 큰 스승이었다 하셨다. 진구 오빠는 사랑채에 ‘광일의숙’을 설립하였는데 어머니도 동네 언니 오빠들과 어울려 공부하였고 특히, 진구 오빠로부터 별도로 배운 한문 실력과 붓글씨는 우리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 모든 선생님을 일본 순사가 붙잡아 가는 바람에 결국 야학당은 문을 닫았다

어머니 10살 무렵 광일의숙 건너편에 야학당(야학)이 생겼다고 하셨다. 야학당에 다니는 애들은 주로 남자애들이 많았고 여자들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셨다. 강일 오빠와 친구 오빠는 같은 증조부 자손이고 야학 선생님은로는 강병국, 강일, 강일구가 있었으며 같은 동네 일가들이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어리지만 나름 학구열이 높고 다른 아이들처럼 집안일을 돕거나 돌볼 동생들도 없어서 열심히 야학에 참여했다. 선생님들이 만든 교재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야학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독려하러 다니는 일, 선생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야학을 못 할 때는 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등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특히 강일 오빠가 왜놈 말을 배울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우리말 우리글을 배워야 한다고 밖에는 망을 세우고 국어를 가르치고 부자들이 가난한 소작인을 착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등 농민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한글도 배우고 가끔은 극단도 오고 노래도 부르며 운동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어머니 12살 무렵 성구 오빠를 비롯한 모든 선생님을 일본 순사가 붙잡아 가는 바람에 결국 야학당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야학이 폐쇄되던 날 어머니는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붓고 일본 놈이 미워서 잠을 못 잤다고 하

시면서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울먹울먹하셨다. 그 후로도 아쉬운 마음으로 야학당에 가보면 가끔 교실 문에 공부할 과제와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당부의 쪽지가 붙어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일찍 풀려나신 선생님의 글씨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텅 빈 교실과 마당을 보고 서러움이 더하였을 것이다.

원래 어머니는 8살 무렵 장암면 소재지의 소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선생이 양쪽 볼을 쥐고 흔들면서 엄마 젖 더 먹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무척 왜소했나 보다. 얼마나 밥 먹길 싫어했는지 보리밥도 없어서 굶던 시절에 외조부는 수시로 강경장에 가서 고기며 엿이나 떡을 사와야 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단연 고기이고 과일도 참외다. 금강을 낀 넓은 들에서 참외를 수확하여 배에 가득 실어 강경 장에 내다 팔고, 콩은 일 년에 팔십여 가마를 수확했다고 한다. 두부를 너무 자주 만들어 먹어서인지 원래부터 두부는 입에 대지도 않았다. 입이 까다로워 부모 속을 무척 애태웠으리라 여겨진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오히려 먹기 싫어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다음 해 어머니는 상구 오빠와 장암소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 점심밥과 반찬은 배고픈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고 또한, 오빠는 가마솔에

서 나온 커다란 누룽지를 책보에 싸서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친구 중 후일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명지학원 설립자이자 총장인 유상근 박사가 찾아와 배고프던 시절을 기억하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상구 오빠 큰아들을 명지대에 입학시켜 4년간 학비를 보전해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수년간 명지대 달력을 외가로 보내주셨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어머니는 일본 소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다. 학교까지 십여 리나 되어 멀기도 하거니와 일제의 교육에 대한 거부감과 오빠가 졸업해서 학교 가는 도중 짓궂은 머슴애들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야학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컸으리라 여겨진다. 야학이 문을 닫자 열 두어 살 된 어머니의 유일한 선생님은 이제 외할머니밖에 없었다. 외할머니는 원래 장암면 소재지에서 한의원을 하시던 문상대의 무남독녀로 독선생을 두고 공부하셨던 분이라 한문에 해박하셨다. 외할머니로부터 바느질과 수예도 배워 손재주가 뛰어난 어머니는 장정마을 응원 깃발에 수를 놓아 솜씨를 뽐내거나 동네의 혼수 감에 수를 놓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운동신경도 있어 마라송(달리기)도 하고 백사장에서 방망이로 공처럼 만든 뭉치를 치며 놀기도 했다고 하니 독특하게 그 시절을 보낸 것 같다.

〈7호에 계속〉

# 중국 동북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자료조사 및 국외네트워크 교류사업 답사기

남상만(기획사업분과위원장)



올해 2019년은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로 우리 민족에게는 진정한 광복과 독립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는 해이다. 본 단체도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5년 동안 김희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항일여성 인물화 제작, 항일여성 상징조형물 건립,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쉬 없이 추진해 왔다.

이제 5년의 걸음마를 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려고 한다. 한국을 넘어 세계 속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항일무장 항쟁의 격전지인 중국 만주지역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가 무관심했던 수많은 항일여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첫걸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

을 수 없을 것이다. 드디어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가슴에 담고 중국으로 떠난다.

3월 12일, 오전 10시 05분, 김희선 이사장님을 단장으로 송형중 대표이사,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이구영 시각예술분과 위원장, 박정희 홍보분과 위원, 필자 6명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대한항공 KE823 항공기에 몸을 싣고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로 떠난다. 2시간 45분의 비행 후에 도착한 목단강시는 다소 쌀쌀하지만 맑은 날씨로 우리를 환영한다. 목단강시 목단강 강변공원에는 8녀투강(8女投江) 기념상이 세워져 있다.

한·중 공동항일투쟁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이 기념상은 1938년 당시 일본군에 맞서 항거하다 목단강에 투신한 동북항일연군 소속 여자 대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기념상의 제자(題字)는 주은래 총리의 부

인인 여성 정치가 등영초(등잉차오)의 글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팔녀’ 가운데 두 명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다. 김순애(金順愛)와 안순복(安順福)이 그 빛나는 이름이다. 안순복은 밀산 항일유격대원 박덕산의 아내로 밀산 지역에서 활동한 혁명열사이기도 하다. 팔녀투강 기념상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경외심은 상상을 초월하며 중국의 항일투쟁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추앙받고 있다.

목단강 8녀투강비를 뒤로 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연길로 떠난다.

그 노정에서 발해국의 수도였던 상경용천부 동경성에 내려 옛 선조들의 자취를 느껴보기도 했다.



▲ 발해국 수도 상경용천부 동경성터에서 발견한 기와조각들

3시간여를 자동차로 달려서 도착한 연길시, 연변대학교 근처의 화양호텔에 여장을 풀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3월 13일, 오늘 저녁엔 연길시 민간단체 후대사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모임(후사모)과 교류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 저녁 모임 전까지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주거지였던 룡정에 다녀왔다. 3.1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아 룡정에서는 3월 13일에 대대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날 만세운동에서 19명의 순국자가 발생했다. 이 날의 만세운동은 3만여 명이 모였고, 사상자의 추모식에도 1만여 명이 모일 정도의 대규모의 조직적인 항일투쟁이었다.

3.13 반일의사릉, 명동학교, 운동주 생가지, 15만원탈취사건 기념비를 둘러보고, 후사모 교류장소로 이동했다. 후사모는 중국 연변주정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이다. 재중동포(조선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중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후대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후사모에서는 회장 김태국(연변대 역사학계 교수), 김광춘 교육부장, 김진복 봉사부장, 신지영 청년회원(연변대 학생), 김천옥 청년회원(연길 제1 고급중학교 학생)이 함께 했다.



▲ 연변후대사랑과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모임(후사모) 회원들과 교류간담회



▲ 3.13 만세운동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무덤을 중요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

김태국 교수는 지난해 본 회의 청소년들이 항일여성 나라사랑 독립운동유적지 답사 차 이곳에 왔을 때 안내를 해주기도 해서 다시 만나니 더욱 반가움이 더 했다. 이날 교류모임에서는 각 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 역사문화교류, 청소년교류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 대한독립여성선언서가 발표된 훈춘애국부인회 본부터 추정지 (현재 훈춘병원 부근)

3월 14일, 오늘은 저녁에 연변대학교 교수들과 교류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저녁 모임에 앞서 훈춘지역의 훈춘애국부인회 흔적을 찾아보았다. 국가보훈처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정보를 바탕으로 훈춘애국부인회 주소를 듣고 길을 나섰다. 훈춘애국부인회가 있었다는 자리는 지금 훈춘병원 주변으로 추정되고 있다.

1919년 이곳에서 대한독립여성선언서가 발표되었다.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훈춘애국부인회의 흔적을 아쉬워하며 훈춘병원 주변을 몇 바퀴나 돌아보았다. 머지않은 시간에 이곳에 훈춘애국부인회의 활동을 알리는 안내판을 꼭 세우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연길로 돌아간다.

연변대학교는 1949년에 세워진 조선족 민족대학이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이 주도하여 건립한 대학은 연변대학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곳에서 연변대학의 민족적 자긍심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회의 지난 5년간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변대학교의 교류를 통해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날 모임에는 박금해 교수(민족연구원 원장), 강수옥

교수(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김태국 교수(인문사회과학원), 고승룡 교수(인문사회과학원), 방미화 교수(인문사회과학원), 신광호 교수(예술학원), 한혜영 교수(예술학원)가 참여했다.

학술연구 영역의 협력은 물론이고 예술문화 영역의 협력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 올해 8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항일여성 독립운동가 국제학술회의에 연변대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과 지속적인 협력연구를 해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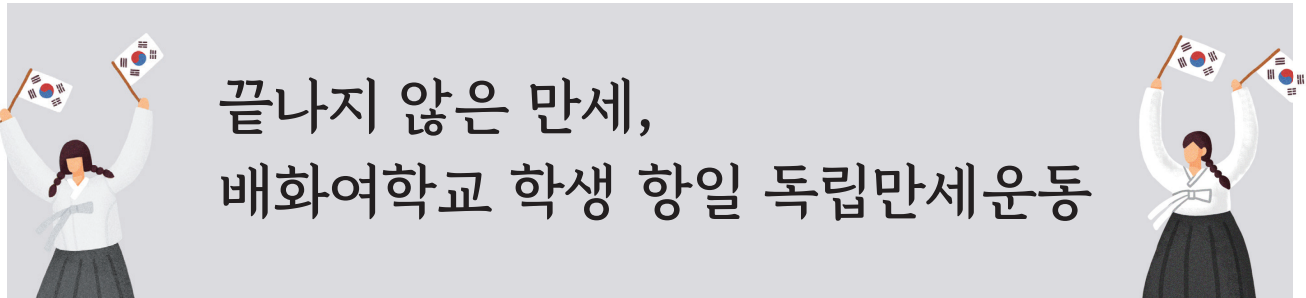
▲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예술학원 교수들과 교류간담회

연변대학 교수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본 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이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이다. 호텔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곤함도 사라진 듯하다.

3월 15일, 11시 45분, 연길공항에서 대한항공 KE892편에 몸을 실으며 3박 4일의 짧은 답사기는 막을 내린다. 하지만 본 회의 활동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중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교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인물화 전시회개최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살이 된 본회는 이제 국제 교류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물론 첫걸음부터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다!

**“비록 이 첫걸음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박경목(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장)

### 1920년 3월 1일 삼엄한 경계 속에서

3.1운동 1주년을 앞둔 1920년 2월 28일 일제는 만세시위의 재발을 우려하여 삼엄경비를 시작했다. 동대문, 남대문 등지의 상점에 '경고'문을 배포하는 동시에 3월 1일 서울 시내에 무장 순사들이 경계하고, 골목마다 순사들을 배치했다. 또한, 학생들의 시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급 학교 관할 담당 도청에서 중등학교장을 모아 놓고 도지사가 시위참여 근절과 재발 시 엄벌할 것을 훈시했다. 그리고 이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케 하여 일절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봉쇄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3.1운동에 호응하고 1주년을 기념하려는 움직임이 서울 시내 배화여학교에서 있었다. 이수희와 김경화가 주도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약 20여 명이 학교에서 독립만

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매일신보》 1920.03.08. '배재, 배화의 萬歲唱者 취조, 또 나머지를 수색중'

###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 운동 전개

1920년 3월 1일 오전, 학생들은 배화여학교 기숙사 뒤편 언덕(필운대彌雲臺 인근)에 올라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다시 운동장으로 내려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삼엄한 경계에 돌입한 일제 경찰에 이 일이 탐지되어 참여했던 학생 중 24명이 전격 구속되었다.

이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던 학생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수희(李壽禧)	김경화(金敬和)
손영선(孫永善)	한수자(韓壽子)
이신천(李信天)	김마리아(金瑪利亞)
안희경(安喜敬)	안옥자(安玉子)
윤경옥(尹璟玉)	박하경(朴夏卿)

문상옥(文相玉)	김성재(金成才)
김의순(金義順)	이용여(李龍女)
소은숙(召恩淑)	지은원(池恩源)
박신삼(朴信三)	최란씨(崔蘭氏)
소은명(召恩明)	박양순(朴良順)
박경자(朴景子)	성혜자(成惠子)
왕종순(王宗順)	이남규(李南奎)

(수형기록카드 사진보존원판 번호 순)

위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형기록카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일로 서대문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수형기록카드 뒷면의 주소 기록을 보면 이들의 주소는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경성 배화여학교 기숙사'로 기재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소은숙(1903. 11. 7. 출생)과 소은명(1905. 6. 12. 출생)은 출생지와 주소지가 '경기도 연천군 군내면 남계리 102번지와 109번지'이고, 성과 돌림자, 나이 차이로 보아 자매 관계로 추정된다. 안



項 事 刑 受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及 其 事 由	言 渡 裁 判 所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監 獄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 배화여학교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투쟁을 주도한 이수희, 김경화(1920. 3월 촬영)



項 事 刑 受		身 分	住 所	出 生 地	本 籍
出 獄 年 月 日	執 行 監 獄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及 其 事 由	言 渡 裁 判 所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監 獄	刑 名	刑 名	刑 名	刑 名

判決 京 城 府 新 龍 山 清 波 學 生 李 永 森 等 十 八 人 江 原 道 襄 陽 府 隆 岬 面 廣 石 里 八 丁 三 男 地 學 生 全 敬 批 判 決 原 本 黃 海 道 長 津 府 連 連 面 黃 龍 里 學 生 孫 永 森 等 十 九 人 江 原 道 楊 口 郡 楊 口 面 中 里 外 子 地 學 生 等 十 九 年 龍 巖 總 督 府 裁 判 所

▶ 이수희 외 23인의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20. 4. 5.)

희경과 안옥자는 본적과 출생지가 각각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140번지와 203번지로 같은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둘 다 1902년생으로 동족 마을 친족 관계나 또는 친구 관계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손영선과 이신천, 이용녀에서도 보인다. 세 사람의 본적과 출생지는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로 손영선은 6번지, 이신천은 8번지, 이용녀는 22번지이다. 출생연도는 손영선이 1902년생, 이신천은 1903년생, 이용녀는 1904년생이다.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태탄리는 1919년 4월 5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태탄리 장터

일대에서 약 1,000명의 군중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지역이기도 하다.(〈이규현, 임찬규 판결문〉 고등법원, 1919. 9. 13. 국가기록원 CJA0000496) 이러한 지역 출신들로 그들 고향의 3.1운동을 경험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한 동일 지역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같이 배화여고 학생들의 1920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학연(學緣) 관계와 몇몇 학생들이 같은 지역 출신으로 지연(地緣) 관계, 자매나 친족으로 맺어진 혈연(血緣) 관계가 비밀을

유지하고 결속을 다지고 주요 동인이 되었다.

이때 체포되었던 배화여학교 학생 24명은 소위 보안법 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보안법 범’으로 기소되었다. 1920년 4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주동자 이수희와 김경화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2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수희 외 23인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0. 4. 5. 국가기록원 CJA0000403 ; 《매일신보》 1920. 4. 6, ‘배화여학교의 만세호창 여성, 작일 판결언도’)

## 일제의 탄압에 당당히 맞선 스미스 교장

배화여학교 학생들의 투쟁에는 스미스 교장(Bertha Adkisson Smith, 1885~1962)의 정의(正義)로운 교육철학과 체포 이후 일제의 압박에 굴하지 않았던 것이 배경에 있었다.(스미스 교장에 대해서는, 배화여중 교장 김주남 선생님이 발굴, 수집한 자료를 참조함) 그녀는 1920년 2월 경기도지사의 사전 훈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문제로 판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참여 학생 처벌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조선인의 처지에서 당연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학생들의 행동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했던 것 같다.

일제는 배화여학교에서 학생들의 독립만세운동의 책임을 추궁하여 교장을 담임하고 있던 스미스에게 참여 학생을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압박했다. 일제가 다나카(田中) 경기도시학관(京畿道視學官)을 학교에 파견하여 조사한 결과, 스미스는 이 사건이 정치적 문제이므로 학교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 하면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주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참여 학생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고려한 바가 없었고, 징계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3.1 운동에 참여한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김한영(金漢永)과 및 윤화정(尹和鼎)을 교사로 채용하였다고 한다.《매일신보》 1920. 3. 6. ‘공등 경기도지사(工藤京畿道知事)의 대영단(大英斷), 미국인 양(兩)교장 인가취소, 배재-배화 양 사립학교 3월 1일에 불온한 행동한 일이 드러나서 당국의 엄중한 처치로 인가를 취소’)

스미스 교장의 강력한 반발에 대한 조치로 일제는 결국 1920년 3월 4일부로 조선총독부령 제21호 사립학교규칙 제14조에 의거해 스미스 교장의 취직인가를 취소 처분했다. 이로 인해 교장 스미스는 출근하지 못하고 학교는 적막에 휩싸였다고 한다. 《매일신보》 1920. 3. 6. ‘교장 허가 취소의 양학교의 상태’ ; 《매일신보》 1920. 3. 21. ‘외인 교장처분전말, 총독부 학무국발포’) 이러한 그녀의 의지로 배화여학교에서는 참여 학생들을 퇴학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 배화여학교 학생의 항일 투쟁은 계속

배화여학교 일어난 항일투쟁은 이후 후배들에게도 이어졌다. 1920

년 3월 입학한 이동숙(李東淑)은 평소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1921년 2월경 기숙사생들과 함께 기숙사와 실내운동장 등지에서 독립을 고취하는 창가(唱歌)를 불렀다.

노래 제목은 ‘부모가 길러주셨을 때’이지만 가사 내용은 ‘13세가 되었을 때 일본놈들의 압박은 참으로 슬프게 느껴지고’, ‘이를 갈며 결심하여 국헌을 회복하려면 와신상담하여 원수를 타도하자’, ‘13도에 태극기가 휘날렸고’, ‘만세, 만세, 만만세 우리 대한 만만세’ 등으로 부모의 은혜를 조국에 빚대어 표현한 노래였다.

그녀는 기숙사생 60여 명 앞에서 동료 학생 2~3명과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며 독립정신을 고취했다. 이 일로 1921년 4월 5월 함흥지방법원 영흥지청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고했다. 이에 사건이 경성복심법원으로 이관되어 1921년 5월 16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동숙 판결문》 1921. 5. 16. 경성복심법원. 국가기록원 소장 CJA0000098)

# 일제강점기 최대 통합 여성단체 근우회

신영숙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1927년 5월 27일 근우회는 서울 YWCA 강당에서 회원 150명, 방청인 1,000여 명의 참석 아래 성대한 창립식을 했다. 당시 언론이 주목한 것은 지난 2월 열렬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속에 탄생한 신간회와 같은 선상의 여성통합조직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근우회였다.**

일제의 눈을 의식해 ‘무궁화 자매 모임’이라는 뜻의 근우회(權友會)는 일본에서 귀국한 최은희, 황신덕, 유영준이 앞장서고, 김활란, 손메레, 방신영 등 민족주의계 여성과 주세죽, 박원희, 정종명 등 사회주의계 여성들이 뜻을 모아 함께 하였다. 이미 1919년 3.1 혁명 이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김활란), 불교여성회(우봉운) 등 종교 단체들과 조선여자교육회(차미리사), 여자고학생상조회(정종명) 등 교육, 계몽단체, 그리고 1924년 최초의 사회주의계 여성동우회(박원희 허정숙 주세죽)를 비롯한 여러 조직(경성여자청년회 등)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분산된 힘을 모을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른바 ‘유일당운동’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탄생한 여성의 통합, 통일 조직이었다.

창립대회에서 21명의 집행위원과 서무·재무·선전조직·교양·조사·정치연구부 등 6개 부서를 두고 조직적 활동을 힘껏 전개했다. 국내외 60여 개의 크고 작은 지회 회원들은 여교사, 기자, 의사, 학생 등 이른바 신여성과 여성 농민, 노동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각 계각층의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행동 강령은 일제의 민족적 억압과 차별은 물론 여성에 대한 봉건적 가부장제 모순과 불합리에 대한 일체 철폐를 명시하였다. 농민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2주간의 휴양과 임금 지급 등 지금도 유효한 조항들이 들어있다. 근우회의 조직적 활동을 통해 **봉건적 폐습과 식민지 지배로부터 여성해방과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1928년 3월 경성지회의 9개조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1. 남녀의 정치적 사회적 절대 평등
2. 결혼의 자유. 직업의 자유
3. 인신매매의 철폐
4. 여자교육의 확장. 현교육제도의 개선. 문맹퇴치
5. 모성보호
6. 무료 탁아소 및 육아소 설치
7. 여공의 보호. 노동조건 및 공장시설의 개선
8. 농촌부인을 보호하는 제종시설
9. 집회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1931년까지 4년여간 조직 활동한 64개 지회는 사회주의계가 60%,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계가 협동한 곳이 19%, 민족주의계 21%로 분류되기도 한다. 어쨌든 일제하 최대의 여성운동 조직으로 이념에서나 실제 활동 면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여성운동사상 한 획을 그은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1930년 1월에는 서울 시내 사립 중등학교 학생들의 항일만세시위를 펼치는 데 주력하였다. 이화여고보, 배화여고보를 비롯하여 경성여자상업, 진명여고보, 숙명, 정신, 동덕, 경성보육, 근화, 실천여학교 등 13개교 여학생들이 근우회의 지도로 일제히 쫓기 하였다. 당시 **근우회사건 또는 허정숙 사건으로 불린 이 운동의 결과 구속자 34명, 불구속자 55명이 보안법 위반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모두 여성이었다. 한편 평양지회의 **조신성이 평양근우회관 설립**이라는 쾌거를 이룬 뒤 1931년 중앙집행위원장이 되어 항일민족여성의 의욕과 열정을 불사른 것도 큰 의미가 있다.

1930년대까지 계속된 여학생 동맹 휴학 지도와 노동여성의 동맹 파업 조사 및 지원, 여성의 의식 계몽 토론회, 교양강좌 개설 등 근우 운동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시기 축적된 여성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전쟁 야욕 속에 강화된 적극적인 탄압과 내부 노선의 이견, 자금과 인력의 부족 등에 의해 1931년 이후 근우회 활동은 점차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신간회 해체 이후 1931년 공식적인 해체 발표도 못 한 채 유아무야되고 만 것은 한국여성운동사상 또 다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긴다. 그러나 근우회가 표방한 여성통합과 단결의 역사적 의미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광주지회 심포지엄 기초발제

# 여성독립운동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 - 광주·전남 항일여성투쟁과 독립운동 개념의 확대 -

이경순(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일본 식민주의에 맞선 선조들의 독립 운동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다. 그럼에도 2018년 1월 기준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 14,830명 중 여성은 296명(1.99%)에 불과하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

“한날 어제의 이름으로 그들을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 I. 잊혀가는 여성독립운동가의 재조명

올해는 민족자주, 반외세의 깃발을 들었던 3.1운동 100주년, 호남항일의병학살 11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거행된 작년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강우규, 박재혁, 최수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이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국의 어머니들’도 있다며 유관순 열

사 외,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동풍신, 윤희순, 곽낙원, 남자현, 박차정, 정정화와 부산 일신여학교 여학생들을 열거했다.

동풍신은 15세이던 1919년 3월 함경북도 명천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1921년 17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여 유관순 열사와 닮은 행적에서 북의 유관순으로도 불린다. 윤희순은 최초의 여성의병장으로 1895년 을미의병과 1907년 정미의병 당시 군사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으며, 1911년 만주로 이주해 독립운동을 이어갔으나 남편과 아들이 고문으로 숨지자 스스로 곡기를 끊고 75세에 순국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모친인 **곽낙원**은 강직한 성품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뒷바라지를 도맡았으며, 영화 <암살>에서 안옥윤의 실제 모델인 **남자현**은 3.1운동 직후인 3월 9일 46세의 나이에 압록강을 건너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1919년 만주 지란성 안투현에서 조직된 우리나라 무장독립운동단체. 이상룡을 지도자로 하여 농민들에게 군사 기술을 가르침)에 가입한 독립군의 어머니이다. **박차정**은 광주학생운동에서 근우회(槿友會, 일제강점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항일 구국 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로서 그게 활약하다가 1930년 신간회와 함께 해산됨) 사건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활동을 하였으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의열단장 김원봉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그간 이념을 잣대로 내세운 과거 친일 정부로 인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회고록 『장강일기』로 유명한 **정정화**는 3·1운동 직후 시아버지인 대동단 총재 김가진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후,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30년까지 혈혈단신으로 6차례에 걸쳐 국내와 중국을 넘나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태극기를 그렸다”고 소개한 **일신여학교 학생들**은 1919년 3월 11일 부산 지역 만세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 오전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 시청 전시회에서 건국의 어머니들이자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대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한날 어제의 이름으로 그들을 두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어머니와 아내들 또한 “형무소 앞 골목에서 샴바느질과 막일을 해가며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던 독립운동가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간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분들에 대한 재기억과 기념을 다짐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아직도 찾지 못한 더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 저의 강연은 아직껏 발굴되지 못한 채 역사의 침묵 저편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광주 전남지역의 항일여성운동가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들을 어떻게 기록화, 역사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한다.

## II. 남성중심 독립운동에서 주변화된 항일여성운동

문 대통령이 독립운동 역사에서 여성들을 기억해줄 것을 당부한 것은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면 ‘독립운동가=남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중심의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주체들이 잊히거나 배제되기 쉬운 점을 간과하지 않는 역사인식에 기인한다. 대통령은 여성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김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성을 포함해 여타 주변부 주체, 즉 민초들의 존재를 기왕의 독립운동사에 불러낸다는 복원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여성을 포함해 주변부 주체의 독립운동사를 역사에 끌어들이 ‘역사바로세우기’를 시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으로써 남성중심의 독립운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변부 주권주체들의 행위를 부각시켜 독립운동의 개념을 한층 확대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가 작년 1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활약은 여성 의병뿐만 아니라 3·1운동을 비롯해 여성농민, 노동자, 학생과 문화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특히 3·1운동을 기점으로 여성은 지역·계층·성별 간의 소통에 기초해 항일 구국투쟁을 실천한 주역이었다. 이처럼 양반·지식인·학생·노인·농민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뛰어넘는 여성의 행보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농민수탈에 반대한 농촌 여성들, 시골 아낙네들이 주축이 된 ‘안사람 의병단’부터 ‘호수돈 비밀결사대’까지 여러 조직이 있었으며 일본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임신부, 조선총독 암살에 나선 여성 투사와 권번 기생의 독립운동등도 포함된다. 여성단체 중 1920년 이전에 설립된 ‘송죽회’ ‘애국부인회’ ‘상해 애국부인회’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등은 3·1 만세운동에서 활약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주역이 된 단체였다. 또한 1920년 이후 ‘근우회’등 많은 단체가 외부적으로는 사회활동단체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 단체였다. 보훈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를 국내외로 구분할 때, 국내 66%, 국외 34%이며 주된 활동지역은 국내(163명), 중국(72명), 미국(10명), 러시

아 (1명) 순이다.

여성들은 전체 독립유공자 1만3744명 중 여성 참여자로 등록된 대상자는 1931명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248명만이 독립활동을 인정받고 있어 전체의 1.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료 미비나 기준 미달, 행적 미상 등으로 다수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지는 못했으나 248명 이외에 수많은 여성이 독립을 위해 싸웠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의병활동부터 3·1운동, 국내 항일, 의열투쟁, 학생독립운동, 광복군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의 전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대통령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에 집중한 것은 ‘국민 통합’을 역설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에는 아직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기여,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이름 없는 민초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3·1만세운동의 진행 경과가 포함된다. 이러한 주변부 주체들의 참여가 1919년 5월 임시정부 수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는데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독립운동, 경제발전, 민주화, 촛불혁명에

참여한 네 세대가 모두 지난 100년에 걸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다. 이 시대에 함께 걸어갈 길을 밝혀준 수많은 촛불들이 있다”고 언급하는데서 알 수 있다. “지난 겨울 우리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다. 3·1운동으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가 되살려냈다”며 “1700만개의 촛불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 역사를 펼쳐보였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며 “3·1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임을 분명히 하면서 건국절 논란에도 썩기를 박은 것이다. 따라서 3·1운동 자체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에 집중하여 “박제화된 기념식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기념식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올해 100주년 3.1절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020년 개장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옆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볼 수 있다며 “기념관에는 3·1운동에 참가한 나무꾼도, 광부도, 기생들도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의 이름으로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연 대통령이 언급한 ‘이름 없는’ 민중의 참여가 ‘민주공화국’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작년의 각오를 실천하여 이들을 역사로 소환해서 기록

화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우리 모두가 이들을 역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남성/주류의, 혹은 여전히 이념중심의 역사관에 매몰되어 개인의 영웅적 발자취만을 반복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왕의 알려진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독립운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주변부 주권자들을 발굴하고 기록화하여 역사에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중략)

### Ⅲ. 광주 전남 항일여성운동의 새로운 발굴

지금까지 광주 전남 여성독립운동가의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시도된 적은 없고 다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3.1만세운동과 11.3학생독립운동에 주로 국한되었다. 학생독립운동의 경우, 광주여고보와 수피아여고에 국한되고 그밖에 각 여고별로 자료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명진 선생과 홍의화 선생의 발표는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들의 항일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잊혀가는 여성투사들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껏 발굴되지 못한 가장 주변화된 여성 주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의 독립정신도 남성 못지않았고 그 활약상을 봐도 그들은 수많은 활동에 가담했다. 몇 사례를 보더

라도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주권주체임을 부르짖으며 이를 현실화하는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발굴 사례는 우리의 독립운동사에서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여성이 무시되는 경향을 비판하고 나아가 남성/개인/영웅 중심으로 일관되어 온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개념의 확대를 요구한다.

#### 1. 나주 여성농민: 일제의 농지수탈에 죽음으로 항거한 원주이씨

일본 제국주의는 동학농민혁명을 무력으로 좌절시키고 한말의병항쟁에서도 남한대토벌작전까지 벌이면서 호남지방에 대한 탄압에서 극에 달했다. 곡창지대인 호남의 수탈은 일제의 근간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독립투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농산물과 농토가 풍부한 나주는 봉건세력이 욱심내는 수탈대상이었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부터 약탈이 집중된 곳이었다. 일찍부터 일본인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동양척식회사가 진출하여 착취를 시작했다.

일제 식민지 수탈구조가 구축되고 수탈을 위한 악랄한 농업정책에 따라 호남 농민의 고난과 저항이 시작된다. 일제의 무단적 식민농정은 자연히 한국농민의 원한과 불만을 산 대표적인 경우가 나주군 공삼면의 농민들의 항일투쟁이다.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토지를 동척(동양척식)에 빼앗겨 이곳 농민들의 항일투쟁이 시작되었다. 공삼면의 한국농민 1,500여 명은 1912년부터 동척에 대해서는 소작료납부 거부투쟁, 관청에 대해서는 토지반환 청원운동, 법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확인 소



송운동을 각각 전개했다. 일제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토지소유권이 동척에 있음을 확인해줌으로써 한국농민의 꿈을 좌절시켰다. 그렇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나주 농민은 민족모순에 대한 자각을 높여갔다. 그들이 외친 “동척 사원을 죽여라. 영산포 헌병부대를 파괴해버리자”라는 구호는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양된 민족의식이 바로 3·1 민족운동 때 한국농민을 항일투쟁의 전면에서 나서게 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농민이 1910년대에 어떠한 경제투쟁을 전개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적 제약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일제에 대항했던 농민항쟁의 대표적 사례로서 1912년 나주 공삼면 토지회수투쟁에서 피살된 이회춘 노모(원주 이씨)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농민의 풀베기폭동(1918. 8), 강원도 철원군 마장면 농민의 면사무소 습격(1918. 3), 강원도 춘천군 서하면 농민의 면사무소 습격(1918. 5), 강원도 문천군 윤림면 농민의 헌병분견소 습격(1918. 6)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원주 이씨의 경우는 가장 잔혹한 일제의 만행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과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주변화 시키기와 침묵화시키기의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다음은 『고막원교회76년역사』에서 나주지방의 항일 농민운동을 인용한 부분이다.

나주지방의 항일 농민운동이 세상에 알려지기는 1925년 7월 13일 <동아일보>에 흉악한 동양척식회사와 나주 농민토지전쟁 전말이라는 제호 아래 천일공노할

‘동양척식’의 죄상을 대서특필한데서 출발한다. 이 항일 농민운동은 칼 찬 일본헌병과 순사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 웬 양복쟁이 한 놈이 쇠매를 내려치면서 ‘동척 소유’라는 팻말을 박기 시작하자 한 노파가 한 사코 그 팻말을 뽑아 내 팽겨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땅은 경성궁으로 부터 동척이 샀으니 그리 알고 앞으로는 동척에 소작료를 내시오.”

그들은 노파를 밀쳐버리고 다시 그 팻말을 박기 시작했다.

“남의 땅을 왜 이렇게 무법하게 강탈하느냐?”

노파가 울음 반 고향 반으로 계속 저항하자 일본헌병이 나서서 그 노파의 목에 포승줄을 칭칭 감고 사베루(軍刀) 자루와 몽둥이로 미친개 두들겨 패듯 팬 것이다.

그 노파는 잠시 후 헌병의 손아귀에서 빈 자루처럼 맥없이 쓰러졌다.

1911년 2월 12일(음력), 나주군 왕곡면 금산리 이회춘의 노모는 일본 헌병 나카지마의 몽둥이에 이렇게 맞고 즉사한다(1925년 7월 13일 <동아일보> 대서특필)

당시 나주들 왕곡면, 영산면, 세지면(옛 명은 공산면) 등 곳곳마다 이와같은 유형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공삼면 토지회수투쟁은 반외세의 자주독립과 반봉건을 지향하면서 일제의 침략을 끝까지 막아내고자했던 공삼면 농민들의 토지회수투쟁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민족민중항쟁이다.

이처럼 나주지역에서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주와 소작관계 때문이다. 농토를 수탈당한 농민들의 분노가 일제와 직접 수탈자인 일본인에

대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적개심을 조직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적색농민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영산포의 경우, 1910년에는 100정보 이상의 일본인 농장이 6-7개에 달할 정도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진출이 압도적이었다. 일제의 농지수탈에 대한 투쟁이 본격화된 1920년부터 전국에서 15건의 소작쟁의가 발생했는데 전남이 5건, 1924년에는 전국의 164건 가운데 전남이 59건, 1925년에는 204건 가운데 105건으로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수탈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pp. 133-139).

이미 나주 일대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약 100년 전의 나주 공삼면 토지회수투쟁에 적극 가담한 이회춘 노모 후손들은 그간 수차례 국가에 서훈 신청을 하였던 만 번번이 퇴짜당하였다. 그간 KBC에서도 취재를 했고 몇차례 신문에 보도도 되었지만 모두가 재산 찾는 행위로만 보지, 항일투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면서기 선에서 재산을 찾으려는 행위로만 처리하였던 점에서 과거 정부가 여전히 일제식민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점,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폭력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부의 식민근성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렇게 중차대한 항거의 중심에 여성농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문정부 하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알리게 되었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생각에 1910년대를 돌이켜보면, 아마도 전국에서도 이같이 항거하다 죽은 농민여성은 처음이지 않나 싶다. 일제 강점기 초기에 가장 용기있게 제국주의 만행에 죽음도 불사하고 항거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앞으로 남북한이 항

일농민투쟁에 관해 함께 전수조사를 할 때 나주의 여성농민의 경우는 그 표본이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현재 나주 농민여성들은 나주 농민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독립투사 원주 이씨를 기려 나주 여성농민의 날로 제정할 것을 고려중이라 한다. 여기에서 그간 김병균 목사님과 농민회장님의 관심과 열성에 힘입은 바가 큼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두분은 직접 후손들을 대면해 여러가지 자료를 보내주셨다. 향후 보훈처에 서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호적과 원적을 찾아 후손을 찾는데 도움을 주어 현재 6대 손의 연락처까지 알게 해주셨다. 특히 이복순(1945- 이회훈의 손녀이자 원주 이씨의 증손녀)씨를 직접 만났는데,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도 직장에 다닐 정도로 건강하시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공적서를 작성해야할 때로 생각된다.

## 2. 나주의병 최윤룡의 부인 임씨의 죽음의 항거

집안의 남자 4명이 의병투쟁 중 일제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아낙네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다. 이들의 자결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고문에 의한 죽음이나 피살이 아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나주 다시면에 1910년 전후로 한가족 다섯분의 의병전쟁관련 순국자가 있는데, 남성 네분은 서훈을 받았고 남편등의 죽음에 한을 품고 우물에 뛰어들어가 죽은 여성 순국자는 아직껏 추서되지 않았다.

다음은 <나주신문>에 실린 내용이다.

“3년전 재경나주항우회장을 지낸 최병석씨와 나주 수성최씨 종친들은 재야사학

자이자 후세변호사 연구모임의 정준영 회장을 찾았다. 구한말 의병활동으로 순국한 최택현(崔澤鉉 당시 48세) 최윤룡(崔潤龍 당시 26세) 최광현(崔匡鉉 당시 55세) 최병현(崔柄鉉 당시 47세) 네 분의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여 독립유공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다. 최택현과 최윤룡은 부자간이고 최광현과 최병현은 최택현의 4촌이다. 나주지역 명문가인 수성(隋城) 최씨의 일가 네 분은 '탕' 소리와 함께 일본군이 쏜 총에 살해됐다.”

최병석씨와 정준영씨는 네 분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많은 노력과 자료 수집에 열정을 다 바쳤다. 당시 국가보훈처에서는 "일본 측의 공식 재판 기록이 없다"며 독립유공자 지정에 난색을 표한 상태였다. 재야사학자 정준영씨는 "당시 일제는 밀고자 보호 등을 위해 재판기록 자체를 안 남기고 현장에서 즉결 처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국립중앙도서관 특별코너에 보관되어 있는 1914년판 기우만(奇宇萬)선생의 송사(松沙)문집 권(卷)38 묘갈명57과 1912년 난와 오계수(吳繼洙)선생의 세보지장록에 최택현 일가의 활동이 나온다고 말한다. 호남창의(의병)대장을 지낸 기우만 선생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기정진(奇正鎭) 선생의 손자로 구한말 의병운동을 주도해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된 인물이다.

"일본 낭인들에게 우리 국모를 빼앗기고 국토마저 유린당하고 구한군 군대마저 강재해산 당함에 끓어오르는 의분을 억제할 수 없어 1907년 가을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의병들이 봉기할 때 창고에는 그 의병들을 배부르게 먹일 곡식이 한줌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격한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윤룡(潤龍)의 부친 택현(澤鉉)씨는 위풍이 강직(剛直)하고 당당하여 종형 광현(匡鉉)씨와 종제 병현(柄鉉)씨 등과 분기가 탕천하여 "왜적을 섬멸하지 않으면 나도 생존하지 않으리라"는 결의를 굳게 굳게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公)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인근 영산포 현병대에 이를 제보하니 왜적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밀고자에게 큰 상(賞)을 주었다. 영산포 현병대는 작전상 이 마을 북쪽으로 돌면서 피아간에 혈전(血道)을 벌린 후 이곳 '동촌마을(다시면)'에 이르렀을 때가 1909년 8월 8일이었다. 그들은 최택현 선생 부자와 광현, 병현 형제 4인을 공공 묶어 인근 대곡촌으로 끌고 가면서 불문곡직하고 무수히 구타하면서 "공모한자가 몇 명인가? 이실직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꾀었으나 최택현 선생은 "지금까지 너희 왜적들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너 왜적들의 간을 씹고 싶은데 어찌하여 나에게 공모한자를 묻는고. 오늘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하늘의 뜻인 듯 하니 죽인다고 하여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고 말했다. 더 이상 캐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헌병들은 다음날 네 분 의사를 무안군(함평군) 진례면(학교면) 망월촌으로 끌고 가서 총살시켜 버렸으니 그때가 기유(己酉)년 1909년 8월 10일(음)이라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특별코너에 보관되어 있는 1914년판 기우만(奇宇萬)선생의 송사(松沙)문집과 1912년 난와 오계수(吳繼洙)선생의 세보지장록에 나와있는 기록이다. 현장목격자 최윤로 선생께서는 위 네 분 모두 무안군 진례면에서 피살되기 직전 "나

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고 하는 최씨세보 지장록(庚辰 1940년)과도 모두 일치하고 있다.

최택현 일가의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에 앞장서온 재야사학자 정준영씨는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일가족이 3명까지 참살 당한 기록은 있지만 5명이 함께 몰살한 기록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우리지역 공삼면 토지투쟁과도 관계가 깊은 '일본판 윈들러 리스트'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서대문형무소 복원에 앞장선 인물이다.

1909년 8월 10일(음) 최씨가네 네 분 남성의 장례를 치루고난 일주일후 나주 임씨(崔潤龍의사의 처) 또한 투신자살한 사실을 송사선생은 이를 열부(烈婦)로 격상시키면서 "부친은 나라를 구하라고 죽고(父死於忠) 아들은 아버지를 구하다가 죽고(子死於孝)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었으니(婦死於烈) 각각 그 도리를 다하여(各盡其道) 한 집안에서 일가삼강(一家三綱)을 이루었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부인을 위해서는 다시면 동곡리 동촌마을에 '유인(孺人) 나주 임(林)씨'의 비석이 서있다. 비석은 대부분 뒷면에 망자(亡者)의 간단한 약력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임씨의 비석엔 아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 정준영씨는 "일제강점기 36년간 의병활동하다 처형된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내용을 어찌 동네 한가운데 있는 비석에 남길 수 있었겠느냐"고 말한다. <<나주신문>>

지금껏 의병부인이 자살한 것이 정절을 지키기위한 삼강오륜에 의한 것이라는 유교적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서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은 4명을 몰살한 전

대미문의 사건에서 그녀가 남편을 따라 순종의 덕을 발휘한 것으로 칭송하는 것은 가족들을 살해한 일본의 만행에 대한 죽음으로서의 항거를 배제시킨 결과가 되어버린다. 일제 식민폭력에 항거한 여성을 민족주의 남성중심의 정절관이 합쳐지면 한국여성들은 두 폭력사이에서 실종되고 만다.

<중략>

#### IV. 항일독립운동 개념의 확대와 남북한 공동연구 전망

이제 우리는 국가시책에 발마추어 독립운동사를 정립하는데 있어 이념을 떠나, 남성중심을 떠나, 계급을 떠나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대 정권과 달리 문 정부 들어 여성독립유공자 발굴작업도 본격화되기는 처음이지만 앞으로 시간을 요하는 국가지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작년 여성독립운동기념회 광주전남 지부가 결성되어 오늘 기왕의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재기억을 요구하는 것도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지만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침묵화된 목소리에 말을 걸어 여성독립투사들을 발굴해야 함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자 윤리적 소명이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여러 방법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잔혹했던 상황을 밝히고 작게는 자칫 간과되어 버릴 수 있는 여성의 활약상을 파헤쳐 독립운동의 개념을 확대하여 계승하는데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역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촛불의 선대들로서 이들을 역사화하지 않으면 남성중심의 독립운동사의 허전함과 빈 공간을 제대로 메꿀수 없을 것이다. 주변부 주

체들의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때 우리의 독립운동의 개념도 확장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삶과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 일본 재판부의 판결문을 다르게 읽기, 그리고 여러 증언, 구술기록등을 통해 역사화되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남성독립유공자의 가족 관계를 면밀히 추적해서 여성의 독립운동을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남녀의 역할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데 있어 지역, 민간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연구자들, 향토사학자, 관련 민간학자가 본격적으로 조사하려면 보훈처나 지방문화원등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 일정하게 연속 사업으로 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남한에서의 항일사 바로 세우기를 넘어 남북한, 나아가 범아시아 독립운동과 관련해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관심 받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바로 항일독립운동부분이다. 특히 여성, 의병, 농민, 노동자, 민초들의 독립운동은 남북이 함께하는 공동의 항일투쟁사에서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여성들이 어떻게 투쟁했는가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식민기의 서로 함께하는 기억으로서의 여성독립운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올해 3.1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의 기억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남북화해로서의 전국여성독립운동 공동연구를 기대해본다.

사업소식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강병구 님 자택 방문

- 일시 2019년 3월 17일
- 장소 충남 아산 강병구 님 자택
- 참석 김희선(이사장)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 3.1혁명 100주년기념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전시’

- 전시기간 2019년 4월 2일 ~ 5월 12일
- 전시장소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 II
- 주최·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1987  
울산박물관  
(사)울산여성회  
3.8여성의날 울산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서대문형무소 여성수감자와 항일투쟁〉 세미나

- 일시 2019년 5월 8일
- 장소 사숙재회관 5층 회의실



## 이희호 선생님 문병

- 일시 2019년 5월 12일
- 장소 연대 세브란스 병원
- 참석 김희선(이사장)  
송형종 (대표이사)  
김서경 (시각예술분과 위원)  
김운성 (시각예술분과 위원)  
사진 가운데 - 김홍걸



## 이효재 선생님 문병

- 일시 2019년 5월 17일
- 장소 창원 대학병원
- 참석 김희선(이사장)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어록 전시

- 일시 2019년 5월 22일 ~
- 장소 본회 건물(사숙재회관) 외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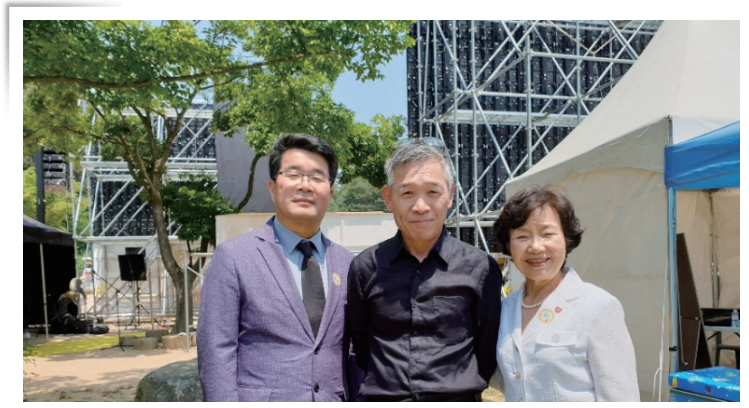
“나는 죽어서도  
독립만세를 부르리라”

- 김경희(송죽비밀결사대 주역 평양숭의여고 교사)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

- 일시 2019년 5월 23일
- 장소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묘역
- 참석 김희선(이사장)  
송형종(대표이사)



## <근우회와 항일여성독립운동> 세미나

- 일시 2019년 5월 27일
- 장소 사숙재회관 5층 회의실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조직 개편 및 각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 일시 2019년 5월 27일 17:00
- 장소 사무국
- 내용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
  - 신영숙(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장)
  - 남상만(기획사업분과 위원장)
  - 김경익(공연예술분과 위원장)
  - 이구영(시각예술분과 위원장)
  - 이민재(영상예술분과 위원장)
  - 이은주(홍보분과 위원장)
  - 홍정석(청년미래분과 위원장)
  - 표대연(대외협력분과 위원장)
  - 이길용(대외사업분과 위원장)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분과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 〈부부 독립운동가의 사랑과 투쟁 그 첫 번째 이야기 :

### 박차정, 김원봉 부부〉세미나

- 일시 2019년 6월 14일
- 장소 사숙재회관 5층
- 발표 이송희(전 신라대 교수)



## 카페 드롭탑 MOU 체결

- 일시 2019년 6월 25일 10:00
- 장소 카페 드롭탑 사옥(서울 서초구 잠원동)
- 내용 상호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
- 내부참석
  - 송형중 (대표이사)
  - 이길용 (대외사업분과 위원장)
  - 표대연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안내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제2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  
100년 전의 함성, 오늘 그들 여기에



### 국제심포지엄

- 일시 : 2019. 8. 12.(월) 14:00
- 장소 : 세실극장
- 주제 : 항일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회고와 전망

### 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 일시 : 2019. 8. 10.(토) 17:00
- 장소 : 배재어린이공원 야외무대

### 제1회 항일 역사 독백대회

- 일시 : 2019. 8. 11.(일) 17:00
- 장소 : 배재어린이공원 야외무대

###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회

- 일시 : 2019. 8. 10.~14.
- 장소 : 세실극장, 배재어린이공원, 덕수궁 돌담길

### 만주 독립항쟁 역사 유적지 답사

- 일시 : 2019. 8. 26.(월)~30.(금)
- 장소 : 중국 만주지역 일대
- 참가 : 대회 수상자 및 청(소)년 등

### 주제연극

- 일시 : 2019. 8. 7.(수)~18.(일)
- 장소 : 세실극장
- 시간 : 평일 20시, 토요일 16시/19시, 일요일 16시
- 제목 : 〈1919, 세상을 바꾸기위한 과정의 기록〉

###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 접수 : 2019.6.15.~9.30.



## 공모전 안내

※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http://www.herstorykorea.org/>) 참고

### 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제2회 항일 역사 랩대회**

참가접수 기간  
2019.6.15. - 8.2.  
예선 및 본선  
2019.8.10. 17:00~

참가자격  
중등·고등 대학생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홈페이지 참조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장소  
배재도서관 특별무대

참가방법	제출서류	심사 내역
인문계 1학년이상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일에 한함	- 참가신청서(제출용) 1부 - 창작 랩 가사 및 공연장 사진 첨부 제출	대상부처(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공생보존처(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문화재단(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 접수기간: 2019년 6월 15일 ~ 8월 2일 * 접수처: 배재도서관 특별무대 (주최처)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a href="http://www.herstorykorea.org/">www.herstorykorea.org</a>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2019년 8월 14일 ~ 15일, 배재도서관

주최·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존처  
홈페이지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이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mailto:herstory@herstorykorea.org) 문의전화 02924-0660

### 제1회 항일 역사 독백 대회

**제1회 항일 역사 독백대회**

참가접수 기간  
2019.6.15. - 8.2.  
예선 및 본선  
2019.8.11.

참가자격  
고등·대학생 일반인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홈페이지 참조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장소  
배재도서관 특별무대

참가방법	제출서류	심사 내역
인문계 1학년이상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일에 한함	- 참가신청서(제출용) 1부 - 독백대본 1부(1000자 이내) 첨부 제출	대상부처(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공생보존처(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문화재단(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 접수기간: 2019년 6월 15일 ~ 8월 2일 * 접수처: 배재도서관 특별무대 (주최처)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a href="http://www.herstorykorea.org/">www.herstorykorea.org</a>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2019년 8월 14일 ~ 15일, 배재도서관

주최·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존처 한국민족협력회  
홈페이지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이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mailto:herstory@herstorykorea.org) 문의전화 02924-0660

###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제1회 항일 역사 시나리오 공모전**

참가접수 기간  
2019.6.15. - 9.30.

참가자격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  
홈페이지 참조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수상작  
개별통보

참가방법	제출서류	심사 내역
인문계 1학년이상 우편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일에 한함	- 참가신청서(제출용) 1부 - 시나리오 1부	대상(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공생(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문화재단(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중앙도서관(위원장 1명 상임 및 상과(300명))
* 접수기간: 2019년 6월 15일 ~ 9월 30일 * 접수처: 배재도서관 특별무대 (주최처)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a href="http://www.herstorykorea.org/">www.herstorykorea.org</a>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심사: 2019년 10월 14일 ~ 15일, 배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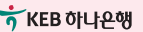

주최·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후원 국가보존처  
홈페이지 [www.herstorykorea.org](http://www.herstorykorea.org) 이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mailto:herstory@herstorykorea.org) 문의전화 02924-0660

## “100년 전의 합성,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을 위해 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세상 만들어가겠습니다!”

### ♡ 개인 회원 ♡

강성중 강영준 강원기 강정숙 국경복 김경미 김경순 김경실 김경옥 김광준 김광희 김기봉 김도연 김동민 김명연 김명옥 김명주 김미희 김민성 김병국 김병기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삼웅 김서경 김선경 김선현 김성호 김성훈 김세원 김소진 김수미 김순단 김시명 김우진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애영 김연옥 김영섭 김영조 김영주 김영훈 김예진 김완순 김운성 김운채 김윤경 김은미 김인호 김일옥 김일진 김자동 김정화 김종민 김종진 김지환 김지희(요가) 김지희(강변구) 김지희 김진현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관 김태녕 김현숙 김현태 김희선 김혜라 김행자 권성국 권태순 나유진 나종일 남상만 남상혁 노다니엘 노명희 노영숙 노은미 노은영 노재훈 명진 문병호 문성근 문시안 문인숙 문인철 문향숙 민경선 민향선 박경덕 박경목 박국호 박금란 박남식 박삼규 박소리 박순경 박운학 박윤옥 박은희 박원광 박장우 박정아 박정철 박정희 박종분 박진호 박재성 박재정 박재홍 박창식 박태균 박하은 박효은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영철 방지영 배기성 배성호 배우진 백소망 백정애 변경순 서병남 서보현 서찬희 서쌍원 서인아 설 훈 성기홍 성세정 성현진 손덕수 손 윤 손태수 손희영 송보경 송주는 송아람 송현권 송현석 신수정 신상규 신영숙 신은영 신재남 신종근 신희주 심소라 심용식 안광진 안성래 안재준 안해영 안희정 양경숙 양미강 양재원 양혜경 양호준 염락원 오상욱 오세홍 오여주 오우숙 오재호오철의 오화자 유승희 유인경 유종일 유준상 유창우 유하영 유홍준 윤여운 윤영전 윤현식 이경순 이구영 이기탁 이길용 이덕일 이동준 이동철 이만열 이문석 이미경 이미희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이보나 이상덕 이석문 이석현 이성래 이성철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 이은주2 이원표 이재희 이정기 이정원 이정환 이종걸 이주한 이진규 이진석 이진숙 이찬희 이창현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행자 이효식 이효재 이화섭 이혜경 이희수 임기상 임동건 임수빈 임쌍금 임옥상 임용석 임은순 임정희 임준호 임진택 임현영 위기훈 장병화 장수인 장유식 장정수 전경미 전기호 전형진 정건하 정동익 정성호 정세규 정순영 정영진 정용설 정원재 정유경 정춘생 정춘숙 정택수 정희영 조수민 조정식 조희숙 주영석 지광희 차영조 천병태 천신애 천정배 천혜진 최교익 최광호 최라운 최병일 최선량 최성자 최영환 최영희 최용철 최윤정 최은규 최정순 최정현 최진섭 최진아 최준영 최재호 최현철 최황열 표대연 탁은지 하명호 하지완 한건희 한익성 함세웅 한정수 함 진 홍사립 홍소연 홍정석 황기흠 황수환 황은혜 HARLFINGER OKPUN - 회원 총 307명


### ♡ 단체/기업 회원 ♡

 수협  KEB 하나은행  DROPTOP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분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대일사이버노동대학(주)에너지파트너 지광희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헤림교회 화운차문화협동조합

###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 도 위 원	김삼웅 김시명 나종일 문성근 박남식 방국진 신은영 양경숙 염락원 유홍준 이덕일 이효재 임옥상 임진택 임현영 정동익 정원재 황기흠
이 사 장	김희선
대 표 이 사	송형중
이 사	강정숙 김선현 김애영 노명희 박정희 손윤 신영숙 신영철 이민석 이상덕 이은주(문해) 이주한 이행자 최성자 홍정석
감 사 사	이승환 홍미영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 장: 신영숙 / 위원: 강정숙 박창식 아선이 이숙화 이희수
기 획 사 업 분 과	위원장: 남상만 / 위원: 이승환 서인아
공 연 예 술 분 과	위원장: 김경익 / 위원: 양혜경 위기훈 윤현식 한정수 김지환 박소리

시 각 예 술 분 과	위원장: 이구영 / 위원: 양혜경 이진석 김서경 김운성 김중도 이화섭
영 상 예 술 분 과	위원장: 이민재 / 위원: 권성국 임준호 오재호
홍 보 분 과	위원장: 이은주 / 위원: 박정희 박경덕 송아람 박진호
청 년 미 래 분 과	위원장: 홍정석 / 위원: 박재정 최라운 남상혁 최용철 김태관 김소진 최선량 송현석 이동준
대 외 협 력 분 과	위원장: 표대연
대 외 사 업 분 과	위원장: 이길용
편 집 위 원	위원장: 김희선 / 위원: 김수미 박창식 송형중 신영숙 이은주 최교익
사 무 국	사무국장: 임선영 / 간사: 최우영
광 주 전 남 지 회	회장: 명진 / 부회장: 박태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밥상에서  
수산물을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는 **우리바다!**  
사라지는 **우리미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하지만, 바다환경 파괴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머지않아 생선이 사라진 밥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의 희망 - 바다.  
수협은 바다를 보전하고, 청소하고, 쉬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수산자원 조성과 바다환경의 보전을 통해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바다를 지켜갑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호·육성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

## ①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전 국민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 수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은 물론 영토 수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문화유산 보존, 경관제공 및 지역사회 유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국가 기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72.1%), 10명 중 8명은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82.5%)하고 있습니다.  
\* 어업·어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수산경제연구원, 2016)

## ②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바다환경파괴와 남획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연근해 어획량의 60%, 49만 톤의 미성어가 생사료로 사용(2016)
- 바닷모래 채취 금지, 냉온배수 배출·간척·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난개발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계통판매제도 시행, 휴어제 조기도입 등 적극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③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민과 국가 전체의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인 헌법에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